

일본 「대문형 나가야」 주택의 변용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the Changes and their Causes in the Space Planning of Gate-Type Nagayas in Japan

이현희* / Lee, Hyun-Hee

Abstract

Nagaya is one of the traditional Japanese housing types in which multiple houses are attached together. In Nagaya, walls are shared by several houses but entrances are privately owned by houses. Nagaya consists of many wooden houses for common people located in parallel with narrow alleys between them. Nagaya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housing types in Japanese architectural history.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background of the origination of Nagaya in Japan,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and land planning, the features and causes of the changes in the space and land planning. In this research, we observed and analyzed unit plans of a block of gate-type Nagayas in Hanan, Osak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inner alleys(Roji) are closed, the number of entrances to each housing lot decreased from two to one since one entrance that used to be open to inner alleys(Roji) are permanently closed. Second, walls between streets and housing lots which used to be one of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gate-type Nagayas are disappearing. Third, as the bathrooms are added to houses, the front gardens are being degraded to empty spaces or sometimes totally removed. Fourth, the space in the first floor of houses become family spaces, and that in the second floor is divided into private rooms for individuals.

키워드 : 나가야, 대문형나가야, 오사카, 일본주택

Keywords : Nagaya, Gate-type-nagaya, Osaka, Japanese hous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오사카(大阪)는 일본 내에서도 각종 도시계획과 구획정리 사업 및 건축물에 관한 규제가 시범 실시되었고, 특히 구획정리에 의한 택지계획과 주택건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도시이며, 오사카에서 시행된 일부 도시계획 관련법은 한반도에 적용된 '구획정리'¹⁾의 근간이 되었다. 오사카는 일본의 전통적인 주거형식을 따르면서도 특유의 공간적 특성을 가진 주택을 발달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20세기 초반 연립형 주택인 나가야(長屋)이다. 나가야는 도쿄 및 오사카 등 도시에 건설된 서민 밀집 주거로서 좁은 전면을 갖고 세대간 벽을 공유하며 건축된 주택형식이다. 특히 오사카에서는 일반 나가야와 구별되어 대문과 정원을 갖는 이른바 대문형나가야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문형 나가야 주택은 자체의 노

후화와 지가 상승, 생활 변화, 집합주택 건설 등으로 현재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문형 나가야 주택의 건설배경과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기성주택지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주택 변용 특성 및 그 원인을 고찰한다. 연구 결과는 일본 주거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단독주택지의 공간체계가 급변하고 있는 한국의 주택지 및 잔존하는 일식주택 및 주택지의 잔존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오사카에 건설된 대문형 나가야의 출현 배경, 주거공간 및 택지의 계획적 특성, 이후의 공간적 변용의 특성과 그 원인을 고찰한다. 대문형 나가야의 출현 배경 및 계획적 특

1) 구획정리의 계획 수법은 독일에서 최초로 개발(1902, Adickes)되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 실시된 것으로 한정하며, 1928년 경성도시계획,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1937년 서울 돈암지구 사업 등이 있다.

* 정희원, 경원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성에 관한 고찰은 관련 문헌 분석을 위주로 진행하며, 주거공간의 변화는 주거공간 및 택지의 공간적 특징분석으로서 주호별 실태조사를 근거로 분석한다.

(2) 조사의 개요

조사대상 지역은 대문형 나가야 주택의 변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문형 나가야가 집중 건축되었던 오사카 일원, 남부의 아베노구 한난쵸(阿倍野區阪南町)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4년도 4월에 주구조사 및 생활실태 조사를 통하여 채집된 주택평면을 기본으로 2007년도 10월에 주구 변화에 관한 조사, 2008년도 2월에 부동산소개소 및 웹사이트를 통한 주택 평면조사를 추가 실시하였다. 추가조사와 시차를 둔 것은 1994년도의 조사 결과 파악된 대문과 담, 주변 영역의 관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조사시기와 조사내용은 <표 1>과 같다. 분석에서는 1994년도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던 25세대의 주호평면 중에서 담과 대문을 갖는 부엌형의 평면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지역에서 재건축, 신축된 주택의 평면과 비교 분석하였다.

<표 1> 조사개요

조사시기	조사내용	조사방법	비고
1994년도 조사	생활실태조사	각 세대를 방문하여 평면을 채록하고 생활실태 면접조사	25세대
2007년도 조사	주구단위 재건축, 개축조사	가 조사된 블록별로 신축, 개축 상황을 기록 & 촬영	4개 주구
2008년도 조사	평면조사	웹사이트 평면조사	8사례



<그림 1> 조사대상 블록
(오사카시 아베노구 한난쵸 2조에 주변, 2008년 google earth)

(3) 나가야의 개요

나가야(長屋) 또는 나가야주택(長屋住宅)은 여러 채의 주호가 한동으로 모여 배치된 형식의 주택이다. 일본의 대표적 민가로서 신분제도가 뚜렷하던 일본 고대부터 종속관계에 속한

사람들이 지배자 주택의 주변에 거주하기 위하여 발달한 서민 주택이다. 나가야의 주호 배열형식은 연속형이며, 각 주호의 전면은 도로에 맞추어 건축하고 그곳으로 출입한다. 주거블록이 깊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안쪽으로 길을 내고 안쪽 길에서 진입하는 나가야를 건축하게 되는데 이를 우라나가야(裏長屋)²⁾, 도로에 면한 나가야를 오모테나가야(表長屋)라고 한다.³⁾

나가야는 동선의 특징에 따라 [통로형], [부엌형], [점포형]의 세 기본형으로 구분된다<표 2 참조>. 통로형은 도로에서 시작하여 대지 안쪽까지 연결되는 서비스통로가 있는 전통 형식이다. 통로형은 통로 옆을 점포로 계획한 마찌야(町屋)와 유사하다. 그러나 마찌야는 교토에서 가내수공업과 점포를 겸하는 주거형식으로 발달한 것으로 주거동과 작업동이 정원에 의해 구분되는 분동형식이지만 통로형나가야는 분동과 중정을 갖지 않는다. 부엌형은 나가야의 정면에 현관과 부엌이 나란히 위치한 것으로 현관과 접한 다다미 2-3장 정도의 현관방이 주호내부의 매개공간으로 활용된다. 현관에서 주거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을 통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점포형은 1층 전면에 점포가 설치된 형식이며, 점포가 현관을 겸하기도 한다.

<표 2> 나가야의 평면유형

종류	통로형	부엌형	미세형
사례			
특징	도로에서 주호 안까지 연속되는 통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로가 현관 및 부엌을 겸하기도 한다.	도로에 면하여 현관이 있고, 현관에서 부엌으로 출입한다. 부엌에서 도로쪽으로 문을 두기도 한다.	도로에서 주호 안까지 연속되는 통로가 있는 것은 통로형과 유사하지만, 도로와 면한 공간을 점포(미세)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오사카 나가야의 종류와 특징

2.1. 오사카의 가로 및 택지계획

오사카의 근세 도시계획은 이른바 「가로구획」에 의해 정비되었다. 「가로구획」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오사카에서

2) 도로에 면하여 나가야를 건축하고 중앙에 대지여유가 생길 정도로 규모가 큰 주구에는 중앙으로 좁은 골목(로지)을 두고, 서민과 직공, 또는 하인들이 거주하기 위한 나가야를 건설하였는데 이를 우라나가야라고 한다. (스즈키, 1998, p.68)

3) 니시야마우조(西山卯三), 일본의 주거(日本のすまい), p.57

는 하수구정비와 지가상승에 따른 시가지 조성으로 이루어졌다. 가로구획은 5.4m~7.2m(3-4間, 1間은 180cm) 너비의 도로가 120m내외 규모의 주구를 분할할 수 있었고, 분할된 주구는 도로에 면하여 건물이 채워진 형태로 건축되었다. 주구를 분할하는 대로변에는 상가주택이나 규모가 큰 집이 건축되고, 주구 중앙부에는 좁은 골목길(로지, 路地)를 두고 우리나라가야가 건축되도록 하여 교토의 주구계획과 유사한 형태가 되었다.

오사카의 교외지역 시가지화가 시작된 것은 1887년경이다. 그러나 택지에 상응하는 도로나 하수구등의 기반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채 시가지가 확산되었다. 따라서 농로를 따라서 나가야가 건축되고, 나가야 뒤쪽의 토지는 논두렁이 있던 곳을 골목(로지)로 만들었다. 때로는 주구를 구획하는 도로에서 로지를 새로 만들어서 나가야를 건축하는 방법이 반복되었다. 오사카의 구획정리는 경지정리와 토지구획정리가 있다. 경지정리는 경지정리법(1899년 공포, 1909년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경작지의 분할과 형질변경, 도로, 제방, 농작업로, 농수로 등의 변경 및 폐지 등 농경지 개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경작지를 정리하여 농지 개량하였던 배경에서 택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한 것이 택지정리로서 1800년대부터 2차대전후까지 실시되었다. 경지정리의 적용을 받았던 지역은 경지정리지구를 그대로 택지화하여 소규모 공장과 나가야를 건설한 니시나루구(西成區) 일대와 건축선을 지정하여 가구를 수정한 오미야(大宮), 타나베(田辺區), 스미요시구(住吉區) 등이 있다. 이 지구는 후에 [시가지건축물법]에 의해 정비되었다.

경지정리 이후는 [토지구획정리]이다. 시기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2차대전 이후까지 진행되었다. 실제 정리사업은 매우 활발하여 1945년경에는 이미 83개조합이 조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건축화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1945년 이후에 건축단계에 접어든 지역도 적지 않다. 토지구획정리는 경작지구획정리와 마찬가지로 조합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는 한난구(阪南區), 나리노구(成野區), 스미에(住み江), 텐노지(天王寺), 모리(森), 오미야(大宮) 등을 들 수 있다.

2.2. 오사카 나가야 주택의 특징

나가야지구의 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사카에서 제정한 것이 「長屋建築規則」이다⁴⁾. 이 법률은 1886년에 일본에서도 선구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나가야 밀집 단지 내의 조건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나가야 단지 내의 통로 너비, 우리나라와 로지입구의 관계, 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 한 동으로 계획할 수 있는 나가야 호수 등 나가야의 구조형태와 관련된 사항, 화장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갖고 있다. 대지 내 골

목(로지)은 너비 180cm 이상으로 2개소 이상의 진입 방향을 갖도록 할 것, 인근 건물과는 90cm 이상 이격시킬 것, 한 동은 5호 이내로 계획할 것 등이다. 위생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공동 사용 하는 변소와 우물을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위치를 제한하고 있다. 「長屋建築規則」은 근대적인 건축법규로 볼 수 있으나, 이 법규가 제정된 후에도 법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밀집 나가야 지구가 출현하였던 것으로 보아 법규의 효력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가야주택의 변화가 보이는 것은 「大阪府建築取締規則(1909)」 제정이 계기가 되고 있다. 「大阪府建築取締規則」은 1909년의 오사카 대화제가 계기가 되었다. 이 법칙은 나가야만이 아니라 오사카의 건물 전반에 걸쳐서 규제한 법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 나가야에 관한 법칙을 보면, 도로를 따라서 지어진 건축물은 도로와 건물의 사이에 45cm(1.5자)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대지는 1/4 이상의 공지를 확보할 것, 주택의 천정고는 210cm 이상으로 하고, 각 세대별로 변소를 설치할 것, 목조 나가야는 전면 15칸(13.5m)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할 것, 목조 나가야가 상호 인접할 경우에는 90cm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 우리나라가야에는 통로를 반드시 설치하되 2개 이상의 접근 방향을 확보하여 도로와 연결되도록 하고, 통로 너비는 90cm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나가야 주동과 주동 사이는 90cm 이상이 이격되도록 하고, 그 부분을 건물과 독립하여 변소 수거 등의 서비스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가야 주변에 공지를 두도록 규정하고 그 통로를 비상통로 및 오물수거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부엌형 나가야가 발전하였다. 그 당시까지 나가야의 오물수거용 통로였던 도오리니와는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변화로서 이후의 나가야 평면 계획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나가야의 건설도 1937년경부터 정체되었다. 토지가 상승, 건축재료 통제 등, 전시체제를 강화한 영향이었다. 나가야의 구조에 대해서도 외벽에 모르타르 바르기, 중심기둥 벽구조체의 타일마감을 강제하거나 동 사이의 간격에 마주한 벽은 길이 상관없이 방화벽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도시재해를 방지하는 것 보다는 방공적 견지에서 방화규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존의 나가야에 대해서도 목재 노출부는 모르타르 등으로 피복하여 방화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오사카에 건설된 전기의 나가야는 통로형이 대로에 면하여 건축되는 오모테나가야로, 부엌형이 우리나라가야 형식으로 건축되었는데, 통로형이 좀더 규모가 큰 나가야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주택에서 변소를 안쪽에 위치시키게 되는 경우 통로형은 변소의 오물을 용이하게 수거할 수 있으나 부엌형은 매우 곤란하였다. 일부에서는 부엌형나가야를 우리나라가야로 건축하고, 몇 개 주거동이 공동사용하는 변소에만 수거용 통로를 두기도 하였다. 나가야는 전반적으로 2층 주택으로 건축되었다.

4) 齊藤和夫, 明治19年制定長屋建築家屋令成立事情について, 日本都市計劃學會學術研究發表論文集, 1982, pp.403~408 및 「오사카100년의 발자취」, 오사카건축사회, 1987, pp.20~29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임.

오미야 지역에는 단층 나가야가 주를 이루었고, 타나베 지역도 단층 나가야가 많은 편이다. 나가야는 2호 연립에서 6호 연립 까지가 일반적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4호 연립나가야가 가장 많았다. 구획정리는 동서로 축을 이루는 주구를 계획적으로 만들고 남북향의 나가야동을 건설하였다. 주구의 단변에는 동서향의 나가야가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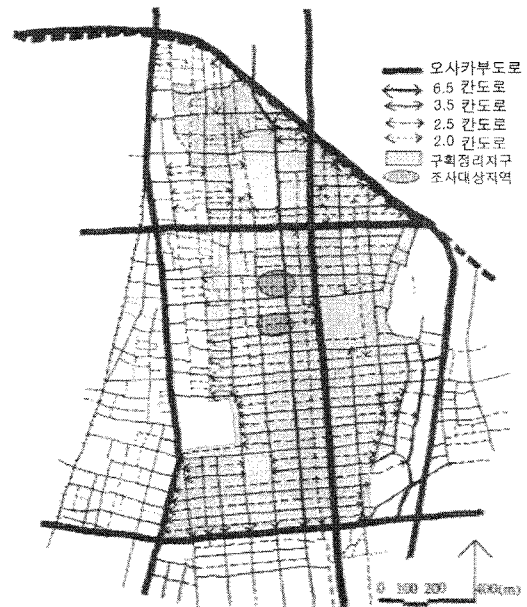


<그림 2> 조사대상 블록 주변의 전경 (1994년 촬영)

3. 오사카 「대문형 나가야」의 출현과 특징

3.1. 주구계획의 특징

조사된 「대문형 나가야」 주구는 1924년 1월에 설립된 한탄토지구획정리조합에 의해 구획정리된 지역이며, 경지정리 수법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그 지역의 지주가 조합을 결성하여 구획정리를 실시하면서 소유권은 유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각각의 택지에는 각각 암목의 건축선이 지정되었고, 그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도로에 의해 구획되어 주구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1928년 9월부터는 「大阪府建築取締規則」에 따라 건축선에 따라 나가야가 건설되었다. 결과적으로 위계가 다른 도로에 의해 구획된 주구가 계획되었다. <그림 3>은 대상지구 주변의 도로위계이다.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도로체계

<그림 3> 조사대상 주변의 도로체계

나가야주택의 건설은 지주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4~6호 조합의 2개 주동과 주인용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규모로 나누어 졌다. 주인이 살면서 관리하기 쉽고, 2개 주동의 임대비로 주인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확보되는 단위였다고 한다⁵⁾.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야 건설을 지양하는 사회적 요구와 지주의 필요에 따라 2.5칸에서 3칸 너비의 정면을 남북향으로 갖는 택지가 2열로 구분된 주구로 구획되었고, 주구는 동서축을 유지하였다. 한편 주구의 동서단부는 도로에 면해서 정면을 갖도록 하는 규칙에 따라 동서향의 동서축 택지로 구획되었다.

에 공지를 두거나 대지경계에 담과 대문, 또는 문설주를 세워서 경계를 짓고 주동을 셀백하여 현관을 두는 평면을 오사카나가야의 특징으로 기술하고 있다. 대지경계선에 문가마에(門構え) 또는 카도바시라(門柱)가 세워지는 특징을 따서 문가마에 나가야(門構え長屋)라고 불리며, 타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오사카 나가야의 독특한 유형이다. 주택은 부엌형 평면구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주거동을 도로에서 후퇴시켜 건설하였다. 공지는 저택의 정원과 같은 공간으로 구성되고 도로와 담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형식이었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담이 있는 나가야] 또는 [대문형 나가야]라고 불리었다. 문가마에는 대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대문형나가야'로 칭한다.

단독 저택과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I 유형이 1920년 중반까지 유행하였고, 이후 구획정리가 진행된 지역에서 II, III 유형이 활발하게 건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II, III 유형이 후기이다. II, III 유형의 시기적 구분은 현단계에서 명확하지 않으나 구획정리 이후 나가야의 건축방식이 크게 변한 결과 발달된 유형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형 IV는 매우 적다.

3.2. 주택평면의 특징

오사카 나가야의 건설과 근대화 과정에 대한 테라우치(1993)는 나가야의 평면유형 조사 연구결과⁶⁾에서 현관과 도로 사이

5) 토지구획정리에 따라 나가야가 대량으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주인세대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임대료가 확보되는 단위의 나가야 블록과 주인세대 거주용 나가야가 함께 건설되었으나 나가야는 원래 임대목적으로 하는 주택이었으며, 주인세대는 이들과 이격되어 있었다. 니시야마, 日本の住まい, 1987

6) 寺内 信, 「大阪における長屋建住宅建設と市街地形成の近代化過程に関する研究」, 京都大博士論文, 1993

오사카 나가야의 주호는 크게 I) 현관이 도로에 면한 평면으로 나가야의 원형적 유형, II) 현관과 도로 사이에 공지를 두는 유형, III) 대지경계에 담과 대문, 또는 문설주를 세워서 경계를 짓고 주동을 셀백하여 현관을 두는 유형, IV) 대지 경계선에서 물러나 현관을 설치하는 유형

1920년대 초기에 오사카 전역에서 매우 유행되었던 주택형식이다. 담은 판자 세로 겹치기, 모르타 마감의 벽돌담 등이었다. 특히 담과 문설주, 대문을 설치하는 등 여러 시도가 있었다. 담에 격자형의 투과형 창호를 설치하고 주거동에 현관을 설치한 것은 저택의 장식 요소에서 가져왔다.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주택의 장식을 보면 특히 헤이안시대의 담과 유사한 형식으로 담과 대문을 설치하고, 작은 면적이지만 전정을 두었다. 특히 대문은 박공지붕을 별도로 설치하여 기품있는 외관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일층과 2층은 기둥이 외부로 드러나는 구조형식(신가베)이며, 주거동의 1층 전면에 현관과 현관방(玄關の間), 연속된 2칸의 다다미방을 두었다. 다다미방은 안방(奥の間, 오후노마)라고 불리며, 정원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정원은 다다미 12장 내외의 면적으로서 식재에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한다. 2층은 현관방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는데 좌시키와 쓰즈키마의 2개 다다미방이 연속 배치되어 있었다. 한편, 엔가와와 복도는 유리문으로 구획하여 공간의 개방감이 확보되고, 정원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의 [대문형 나가야]는 담과 대문이 있고, 대문을 들어서면 크지 않은 전정이 있다. 전정에는 원래 작은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면 2~3장의 다다미가 깔린 현관방(겐칸노마, 玄關の間)이 있고, 연이어서 다다미 4장반 너비의 차노마, 다다미 8장 내외의 방(오후노마, 奥の間), 복도(엔가와, 縁側)가 후정까지 연결된다. 현관방에 설치된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 올라가면, 다다미 6장과 8장 너비의 방이 2개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의 다다미 치수 및 건축치수는 일본 전역에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동경 인근에서는 중심치수를 사용하였고 다다미 치수도 작은 편이었다. 반면에 오사카 인근의 나가야는 안목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다다미의 치수도 180cm를 넘었다고 한다. 따라서 한남지역의 나가야는 같은 수의 다다미가 깔린 공간이라면 동경의 나가야나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식 주택에 비해 여유 있어 보인다.

3.3. 외관 및 대사회성의 특징

조사대상 주구의 대문형 나가야 외관모습은 <그림 4>와 같다. 이중처마의 2장 미서기문이 대문, 회벽과 목재패널로 마감된 높은 담이 외부로 노출된 기둥에 의해 외부면을 정리하고 있다. 높이 차이를 둔 박공형 대문을 두고, 투과 격자창이 있는 담을 두어 저택의 장식적 요소를 채용하였다. 외관의 장식적 요소와 재료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문과 담을 두고 있는 것은 공통 요소이다. 블록에 따라서는 개방형 담을 설치한 경우도 있으나 서양풍 주택의 외관을 갖는 나가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문형 나가야는 도로에 주거 내부의 모습을 전혀 노출하지 않으며, 같은 패턴으로 건축된 외관이

반복되어 매우 규칙적이다. 거주자의 생활양식과 개성이 표현되기 보다는 전체 규범이 중시되었던 외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오사카 대문형 나가야 전경(1994년 촬영)

4. 대문형 나가야 주택의 지속과 변용

4.1. 택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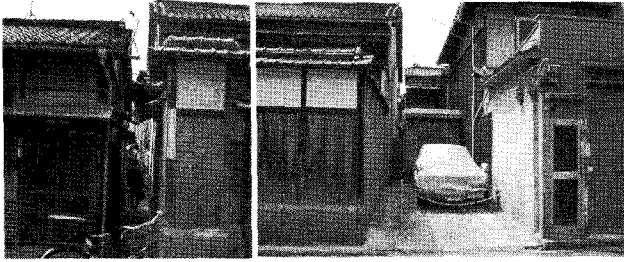
(1)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로와 택지의 관계 변화

조사대상 블록에서 주호 전면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대문형 나가야의 특징인 대문과 담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1994년 조사에서는 대상 블록에서 한세대만이 주택의 담을 헐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나 2008년도 조사에서는 해당블록에 위치한 34개의 주택 중 12개 사례로 급증하였다. <그림 4>는 기존의 담과 대문이 유지되는 사례이며, <그림 6>은 신축 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도한 사례이다. 한편 1개 나가야 주동을 철거한 부지가 12개의 주차면을 확보한 유료주차장으로 변경 영업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인근 주거에서도 빈번히 발견되는 것을 고려하면, 자동차 주차면 확보를 위한 노력이 주거 계획은 물론 택지의 변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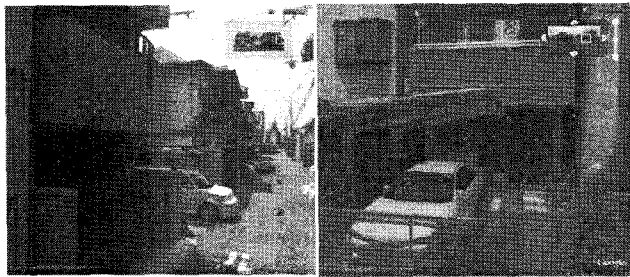
(2) 신축 및 개축에 의한 도로와 택지의 관계 변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지 활용의 변화 외에 신개축되는 주택의 변화로 인한 택지의 특성 변화가 있다. <그림 5>은 1994년 조사 당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지를 활용하는 모습이며, 38세대의 블록 중에서 주차장을 설치한 주택은 2세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블록 내의 신축 주택은 대문형 나가야의 높고 폐쇄적인 담과 대문 대신에 개방형의 대문과 현관으로 계획되고 있다. <그림 6>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전형적 사례이다. 사진은 1층에 피로티 형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2층부터 주거공간을 계획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들어가 현관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획은 2개 필지를 합필하여 전면 9m 이상을 확보하고, 2~4세대가 거주하도록 계획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독주택으로 계획되는 경우에 전면 4.5m에 주차공간과 통로만 확보

하게 되므로 현관 전후면이 협소해진다. 최근의 신축 주택은 <그림 7>에서와 같이 택지 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대문 등의 공간을 충실하여 건축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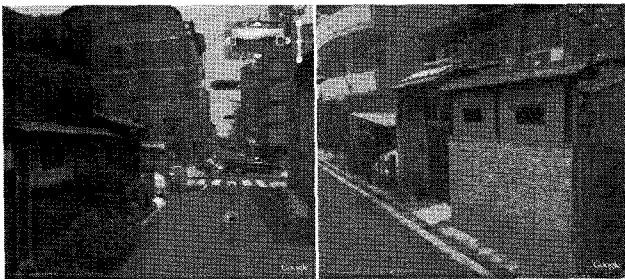
<그림 5> 대문형 나가야 주동 사이의 로지와 주차공간 (1994년 촬영)



<그림 6> 주차장을 설치한 개축 주택의 전면 전경 (2008년 google earth)



<그림 7> 블록 내 신축주택의 현관 및 외벽 (2008년 google earth)



<그림 8> 대문형나가야의 원형외관(좌) 및 개수후 외관 (2008년 google earth)

(3) 진입방법 변화에 의한 택지의 변용

주구주변의 통행여부를 확인하면 택지 전면에서 진출입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으나, 골목(로지)로의 출입은 소멸하였다. 우라로지(뒷골목)으로의 문은 있으나 잠근 상태이며, 신축 주택에서는 문조차 계획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택의 증개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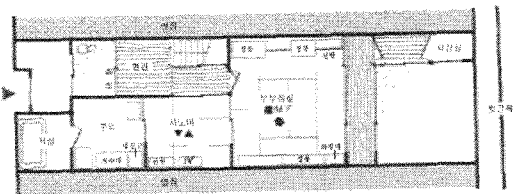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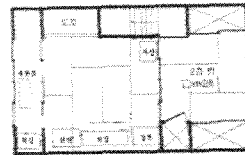
대부분 주호 전면부에서 이루어지며, 택지선을 넘는 상태로 건축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대문형 나가야의 담을 철거하고 서터 또는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주택, 신축주택에 의하여 비상사태 및 서비스를 위하여 계획되었던 우라로지(뒷골목)는 사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택지 사이에 피난통로를 계획하였던 2면 진입의 오사카 대문형 나가야는 현재 전면진입만 가능한 2열형의 택지로 변용되어 있다.

4.2. 주거공간 및 주생활의 변화

대문형나가야 주택의 주거공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4년도 수집된 평면을 공간모식도로 분석한 것이 <표 3>이다. 원형평면은 약 4.5m의 전면폭과 7~8장의 깊이(약12~14.4m)의 택지에 계획된 대문과 담을 갖는 부엌형 나가야주택이다.

(1) 전면의 욕실 증축

욕실의 증축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개축의 변화이다. <표 3>에서 보면 현관은 유지하면서 부엌과 담 사이에 욕실을 증축하는 방법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9>는 원형평면과 유사한 공간구조를 유지하면서 전면에 욕실을 증축한 사례이다. 전정(前庭)이 있었던 곳에 증축된 욕실은 부엌에서 출입하도록 하였다.



■주구침실 ■식사실 ■현관 ■담 ■전정 ■부엌 ■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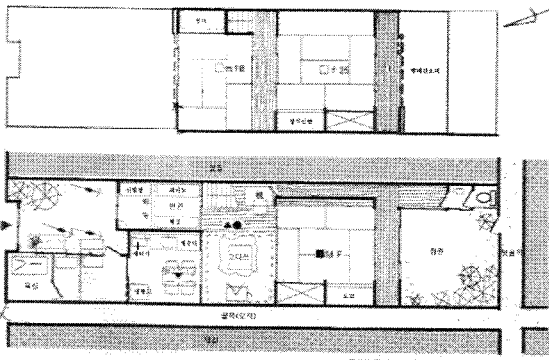
<그림 9> 전면에 화장실을 증축한 사례(OH12)

부엌 전면의 전정은 욕실 증축에 사용하고 현관 전면전정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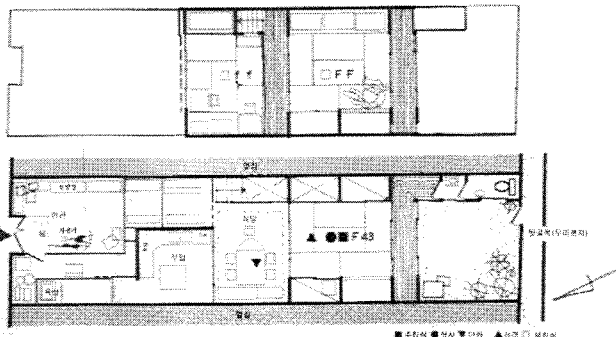
(2) 식사실의 고정 및 DK 출현

현관 옆에 있었던 부엌은 취사만 가능한 공간이었고, 식사는 인접한 차노마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 3>에서 보면 부엌의 공간적 변화 및 사용상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례는 OH4 OH8 OH13 OH14의 4개 사례에 불과하며, 9사례는 부엌의 공간적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차노마를 식사실로 고정화하고 있다. OH3 OH6 OH7 OH18 OH21 OH22는 부엌 바닥을 방 높이고 동일하게 하고, 설비개선 및 면적증가로 DK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문형 나가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엌이 주거내부와 같은 영역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엌, 현관은 신발을 신는 공간으로서 전정을 통하여 외부

와 연결되는 공간이었으나 부엌이 DK화 된 후에는 현관만이 외부와 연결된다. 특히 욕실 증축으로 좁아진 전정은 독립공간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공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신축 사례에서 현관 전면에 개방 노출형의 대문이 좁은 공지를 두고 계획되는 경향과 같은 요인으로 해석된다. <그림 10>과 <그림 11>는 부엌과 욕실 주변의 공간변화를, <그림 12>은 주거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변용된 사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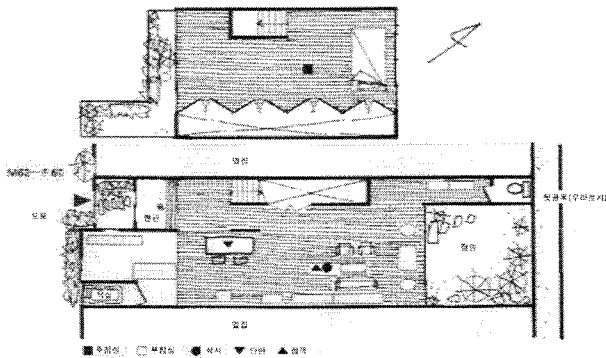


<그림 10> 2층의 연속된 방 사이에 복도를 설치한 사례
부부와 성인자녀의 4인 가족, 부엌은 DK로 개조하였고, 2층은 방 사이에 복도를 설치하여 독립시켰다.



<그림 11> 욕실과 부엌의 개조 사례

현관 옆에는 욕실을 증축하고 부엌은 개조하여 DK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차노마를 식사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층은 계단에서 방을 통해 옆방으로 가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의 일부를 복도로 개조하여 구분하였다.



<그림 12> 1층과 2층을 모두 통합한 사례

60대 부부의 주택으로 자녀 출가 후에 1층, 2층은 현관과 욕실, 화장실 외의 모든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불탄 등 가정에서 절기상 필요한 장식물은 불탄 이상 내부에 수납하였다.

(3) 방의 개실화 & 독립화

조사 블록 내에서 대문형나가야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23

개 사례를 대상으로 내부공간 변화 경향을 보면, 대문형 나가야주택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곳은 2층의 연속된 방이 개실화 및 독립화 경향이 뚜렷하다. <표 3>에서 2층의 연속된 방이었던 평면은 복도 출현, 계단 전실의 설치 등으로 계단에서 각각 방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변화한 경우가 7사례(OH3 OH7 OH14 OH16 OH17 OH20 OH21)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주거공간의 특색인 공간의 연속성이 지양되고, 개인공간으로서의 독립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1층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1층에서 통로역할을 하던 안방(오쿠노마)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표 3> 대문형 나가야의 주거공간 변화 모식도

사례명	평면	공간모식도		LDK R관계
		1층	2층	
OH1				
OH2				
OH3				
OH4				
OH5				
OH6				
OH7				
OH8				
OH9				
OH10				
OH11				
OH12				
OH13				
OH14				
OH15				
OH16				
OH17				
OH18				
OH19				
OH20				
OH21				
OH22				
OH23				

<표 4>에서 1층 공간의 실 관계 및 공간 유형을 보면 건설 당시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21.7%), 공간을 유지하고

있거나 일부 공간만 변화하면서 사용방법이 변화한 경우 (65.2%)가 대부분이다. 이를 조합하면 1층 공간은 사용상의 변화 요구만 보일 뿐 적극적인 공간의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이는 공간적 제약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문형 나가야 주택의 내부공간은 독립화 개실화 요구는 2층에서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1층에서는 실간의 관계보다는 부족한 설비관련 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대문형 나가야의 주공간 변화 실태

공간유형	실 관계	사례명	사례수
전통공간유지	K R-R	OH4 OH8 OH9 OH13 OH14	5(21.7%)
공간유지&사용변화	K-DR-R	OH1 OH2 OH5 OH10 OH15 OH16 OH17 OH20 OH23	9(39.1%)
공간 일부변화	DK-R	OH3 OH6 OH7 OH18 OH21 OH22	6(26.0%)
매개공간출현	K-DR-c-R	OH11 OH12	2(8.7%)
공간 변화	LDK	OH19	1(4.3%)

4.3. 외관 및 대사회성의 변화

전통적인 대문형 나가야는 통일된 외관의 연속배치가 주구를 형성하여 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표현하는 주택이었다면, 변용된 후에는 일본의 현대 단독주택에서 보이는 다양성, 개체성이 강조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택지 사이에 로지를 두어 2 방향 진입이 가능하였던 주택의 성격이 전면만 존재하는 주택으로 변용되면서 나가야의 특징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신축되는 외관의 모습에서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디자인 요소가 자유롭게 등장하며, 각각의 디자인 요소가 건축 시기에 따라 선택된다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즉 대문형 나가야는 지주에 의해 일시적으로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건축되어 강한 주거군의 성격을 보였으나<그림 4 참조> 현재는 주호별 불하 이후 소유주가 자신의 주거관과 성향에 따라 차별된 외관의 주택을 건설하므로 같은 블록에 위치하지만 디자인상으로 동질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6, 7 참조>

5. 결론

본 연구는 주택지의 계획적 특성과 주거공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지와 주거공간의 변용 및 그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오사카의 대문형 나가야 주택의 특성 및 변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택지의 변용 : 전면과 후면을 가졌던 대문형 나가야는 후면의 골목(우라로지)가 폐쇄되면서 전후면에서 진입가능하였던 택지 체계가 전면에서만 진입 가능한 택지 체계로 변용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택지의 변용에도 불구하고 주생활의 방향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택지 전후면에 위치한

정원에서 찾을 수 있다. 도로에 접한 주거이지만 안정원(內庭)을 향한 주호인 대문형 나가야는 도로에 이은 전정(前庭)은 활발한 증축으로 사용하면서 안쪽 정원에서의 증축행위는 지양되었다. 즉, 택지 내의 공지였던 전정을 이용하여 주거공간의 변용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주호 전용 외부공간인 정원(內庭)의 유지로 주생활 패턴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 도로와 택지의 영역 변화 : 대문형 나가야에서 대문과 담으로 구분되어 있던 택지는 외부에 대해서는 극히 폐쇄적이지만 내부에는 개방적인 주거공간을 가능하게 한 요소였다. 1994년도 조사에서는 택지의 경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각 주호별로 활발한 증개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와의 경계선, 건축선은 유지되면서 담과 대문은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의 신축과정에서 주차공간이 확보되면서 대문형 나가야에서 보이던 뚜렷한 영역 구분은 사라지고 있다. 1998년도 조사에서는 대상지역 34세대 중 1세대만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대문과 담을 철거하였으나 2008년도 조사에서는 동일 대상지역에서 12세대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에서 주차공간의 확보 여부가 도로와 택지의 영역 변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정의 약화 및 소멸 : 1층 주거공간에는 기존에 없었던 욕실이 증축되면서 전면의 정원이 축소되고 있다. 건설 초기의 정원은 그 성격이 약화되고 현판과 대문 사이의 공지로 전락하고 있다.

(4) 내부공간의 변용-1층공간의 공용화, 2층공간의 개실화 : 대문형 나가야의 내부공간은, 1층은 공용공간으로, 2층은 사적공간으로 개실화되고 분리되는 경향이 보인다. 즉 1층 주거공간은 부엌이 DK로 개축, 차노마가 사실상 고정, 1층방이 거실 기능 강화 또는 고정 되는 등 가족 공용공간이 강화되고 고정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한편 2층은 사적공간으로 사용되기 용이하도록 개실화 되는 변화이다. 결과적으로 1층은 공용공간으로, 2층은 사적공간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보인다.

참고문헌

1. 青木正夫, 増改築による住空間の変容とその原因, 日本建築學會論文集, 1987.1
2. 住宅研究財團, 住文化にみる近代化の足跡, 住宅研究年報, 1988
3. 寺内信, 大阪における長屋建住宅建設と市街地形成の近代化過程に関する研究, 京都大博士論文, 1993
4. 玉置伸悟외, 「玄關後退」型住宅の成立と變容過程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論文集, 1990.7
5. 李賢姬, 韓國の「日式住宅」に見る住文化の持續と變容, 東京大博士論文, 1994
6. 青木正夫, 中流住宅の平面構成に関する研究, 住宅研究年報, 1988
7. 齊藤和夫, 明治19年制定長屋建築家屋令成立事情について, 日本都市計劃學會學術研究發表論文集, 1982
8. 이현희 역, 현대일본주거임기, 국제건축사, 1998

<접수 : 2008. 8. 31>